

광주서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강행

광주시청 앞서 총파업 걸기...주최 측 3000여 명 추산

양극화 해소·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공공성 강화 촉구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일 오후 광주시청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어 불평등 체제 타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양극화·불평등 체제 타파와 각 부문별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 10·20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산별 노조 16곳 소속 조합원 3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이번 총파업 대회는 오후 2시를 기해 서울·부산·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광주대회는 개회 선언, 노동 의례, 대회사, 문예공연, 연대사·투쟁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는 개회 선언문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민중이 주인인 나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라며 “그러나 지난 5년간 한국 사회 불평등, 불공정으로 기인한 양극화는 더욱 심화돼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파탄해졌다. 더 이상 불평등 체제에서 인내로만 버틸 수 없다”며 총파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평등·차별의 온상,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 50여 년 전 전태일 열사

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했지만 오늘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며 “10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윤만을 위한 기계처럼,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권과 자본은 합법적 착취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특수 고용노동자를 양산했으며,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가 노동자 일자리를 보장하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는 장밋빛 미래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며 “위기 책임을 자본에게 묻고 국가가 노동자·민중의 일자리와 생존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투기·불로소득의 대상으로 전락한 주택 정책을 전면 수정, 집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주택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 서열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부모 세대를 등록금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돌봄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

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 기본권임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증명됐다”며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힘주어 말했다. 대중교통 공공성 보장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대회 참가 조합원들에게 ▲체온 측정·손 소독 ▲출입 명부 등록 ▲페이스 실드(Face shield 얼굴가림막)·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유지 등을 당부했다.

감염 예방 수칙 자체 준수 방침을 강조하며 방역당국과 승강기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시청 앞 사거리부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까지 1.1km 구간을 행진한다.

이날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도 전면 파업, 부분 파업, 현장 노조 교육·총회 등 형태로 총파업에 동참한다.

앞서 오전엔 광주시교육청 일대에서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 등 400여 명(경찰 추산 150여 명)이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 공무원 4333명(비조합원 포함) 중 학교급식·돌봄노동자 등 조합원 487명(11.2%)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학교 수 253개교 중 급식 정상 운영 학교는 213개(84%), 빵·우유, 도시락 지참 등 대체 급식에 들어간 학교는 40개교다. 돌봄 운영학교 149개교 중 파업참가 학교 수는 17개교(11.4%)이며, 전체 돌봄교실 299개 중 미운영 교실은 10개(3%)였다.

전남에선 비조합원 포함 교육공무직 8912명 중 1570명(17.62%)이 파업에 나섰다. 전체 학교 864개교 중 174개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급식 중단 학교에서는 도시락 지참(8개교), 빵, 우유 등(48개교), 학사일정 조정(61개교) 등으로 대체했다. 초·중·고교 교실의 경우 전체 629개 중 577개 교실(91.7%)이 정상 운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로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높다고 판단, 현장 곳곳에서 기본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우발 상황 또는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자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경력 500여 명도 배치됐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9명까지만 모여 집회·시위를 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 채증 자료를 토대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가려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K-로켓 ‘누리호’ 발사, 나로우주센터 날씨 적함

세계 7번째 독자 개발 오늘 발사
 온도·습도·압력·바람 등 조건 ok

한국이 세계 7번째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발사될 예정인 가운데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봉래면 일대 날씨는 발사 조건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고흥군 봉래면 일대 오전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17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은 초속 3~9m, 풍향은 북향~북서범위고, 강수확률은 20%로 예측됐다. 나로우주센터 인근의 낙뢰나 돌풍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은 누리호 발사 여부를 결정 짓는 전제 조건이다. 우주발사체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은 온도, 습도, 압력, 지상풍, 고층풍, 낙뢰, 구름 등이다.

발사 가능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습도는 25도 기준 98% 이하, 압력은 94.7~104kPA(킬로파스칼)이다. 지상풍은 평균 풍속 15m, 순간 최대풍속 21m가 기준이다. 또 비행 경로 상에 번개 방전 가능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0일 오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기립되어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성이 없어야 한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발사 카운트다운 직전까지 날씨 상황을 점검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3개월 유예

12월31일까지 홍보...내년 1월부터 단속

점심 유예 폐지...한시적 허용구역 마련

광주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조치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 3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와 공동대책회의를 갖고 시민의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민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월말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는 한편 집중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또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까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과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시간 폐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황색선으로 변경 ▲주차문제 심각한 곳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축소·조정 등의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강화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한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021년 청림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작(일반부문)

광주교육의 날씨는 오늘도 청림 :)

